

씨젠, 무상증자 100% 결정... "주주가치 제고 위한 움직임"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은 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증자비율 100%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다. 씨젠 측은 이번 무상증자에 대해 지난달 주주 총회를 통해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5,000만 주에서 3억 주로 늘린 가운데, 신속한 주주 친화 정책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젠은 보통주 1주당 신주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번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현재 발행주식 26,234,020주 중 자사주 242,046주를 제외한 신주 25,991,974주가 추가돼 총 발행 주식수는 52,225,994주로 증가한다. 신주 배정일은 4월 26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5월 20일이다. 무상증자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씨젠 경영지원총괄 김범준 부사장은 "이번 무상증자는 주주환원정책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씨젠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유통 주식수를 증가시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가 역시 회사 본질가치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씨젠은 4월 23일 이전까지 '20년 기준 배당금인 주당 1,500원을 지급하고, 지난 주총에서 도입된 분기 배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번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6월 말 기준 분기 배당금 지급을 위한 이사회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무상증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 공시된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씨젠은 지난 주주총회를 통해 분자진단 생활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유럽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진단키트 2종(Allplex™ SARS-CoV-2 Master Assay, Allplex™ SARS-CoV-2 Variants I Assay)에 대해 CE인증을 받았다.